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규모와 영역별 실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ale and Space Composition by Domains of Upper-Class Housing in Seoul,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홍승재*

Hong, Seung-Jai

강인선**

Kang, In-Seon

Abstract

The drawings that currently possessing by the Jangseogak Librar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s the material which were drawn the figure of house in Seoul (Hanseong-bu), during from the middle part of 17th Century to the end of 19th Century. Since these drawings were drawn in the form of Gangado (間架圖), the layout and floor plan, the function of room of each houses can be examined. Focusing on drawings on which the room name was written among those drawings, this Study has researched about the scale and space composition by each domains of the upper-class housing in Seoul,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originals, all of the drawings were re-drawn using AutoCAD 2008, and the scale of site and building, the occupying area by domains were also analyzed, compared. As the result,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most part of upper-class housing in Seoul had far exceeded over the control limitation about the site size and the building scale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Furthermore, in this Study, by means of concretely research on the space and room composition of each ranges of the upper-class housing in Seoul, it was quite examinable on the architectural figure of the upper-class housing in Seoul,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not known well in the meanwhile.

Keywords : The Drawings in Jangseogak Library, Gangado, Hanseong-bu, Upper-Class Housing, Scale, Space Composition

주요어 : 장서각 도면, 간가도, 한성부, 상류주택, 규모, 실 구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옥도면을 통해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이미지가 공개되다가 2009년에 도면집과 함께 해설집이 발간되었다.¹⁾ 도면집에 수록된 가옥도면은 모두 24매이다. 도면은 주로 하나의 가옥을 대상으로 작도하였는데, 일부는 한 도면에 인접 대지의 가옥을 같이 작도한 것도 있다. 도면의 표현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간가도(間架圖)의 형식을 취하였다.

간가도는 조선시대 건축도면의 한 표현방식이다. 19세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쓰였던 수법이다. 간가도는 목구조의 특성에 맞추어 온칸과 반칸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리기 때문에 집의 규모 및 건물의 구조까지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칸마다 실명이 표기되

어 있어 각 집의 배치와 공간구성, 평면구조 및 실의 기능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은 조선왕실고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제작의 주체와 도면의 가옥들이 왕실과 관련된 가옥 또는 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은 직접적인 연관성과 제작의 배경 및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 중 13개의 도면에서 도면의 명칭을 통하여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소유자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한성부 내의 주거의 모습으로 추정된다.²⁾

그동안 조선시대 한성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유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문헌 자료도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20여 채의 가옥들도 대부분 19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감영도」와 대한제국기의 실측도면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19세기 또는 구한말 한성부 도시주거의 모습을 규명하려는 연구³⁾들이 시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회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2009).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해설편).

2)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에 대한 개요 및 간가도에 대해서는 홍승재(2009).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 근대건축도면집 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3-39 참조

도된 바 있으나 아직도 19세기 이전의 한양의 주거 모습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백을 일부라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 규모와 영역별 실 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은 도면의 크기가 각기 다르고 표현의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현방식에 따라 도면의 유형을 크게 분류해 보면 먼저 도면 바탕에 방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실명의 표기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옥도면은 ‘북궐도형’이나 ‘동궐도형’에서 볼 수 있듯이 바탕에 주묵과 떡 또는 연필 등으로 방안을 그리고 그 위에 방안 한 칸을 건물 한 칸으로 하여 도면을 작도한 것과 방안을 그리지 않고 작도한 도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50%정도이다. 간가도는 매 칸마다 각 실의 명칭 또는 방(房), 청(廳) 등의 기능을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부 도면은 창호의 종류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한다.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도 대부분

실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는 내사(內舍), 사랑(舍廊), 사우(祠宇) 등 채의 명칭 또는 집주인만 기록하고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실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가옥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도면 중에서도 ‘磚洞宅淸風舍廊’과 같이 집 일부만 그려 있는 것과 건물의 성격이 불분명한 ‘前禦將宅四棟平面圖’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도면 중에는 한 도면에 두 개의 주거가 같이 그려진 것도 있어 연구 대상 가옥 수는 모두 17개이며 <표 1>과 같다.

대상 가옥 중 8개 가옥은 도면 한쪽에 ‘合間數六十六間半’, ‘合間七十七間’, ‘合一百四間半’ 등으로 가옥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 칸수를 도면과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고 있어 도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옥의 경우도 퇴를 반 칸으로 보고 가옥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가대의 규모는 바탕의 방안을 기준으로 하였고, 방안이 없는 가옥은 도면상의 한 칸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도면을 AutoCAD 2008로 재작도하여 가대와 영역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가옥도면

가옥 번호	도면 번호 ⁴⁾	명칭	크기(cm)	방안유무
1	143	小公洞洪高陽家圖形	99.7×109.6	○
	146	士大夫家配置圖形	71.4×58	×
2	147	士大夫家配置圖	56.7×45.4	○
3	148	卞世義家	60.4×91.4	×
4		韓宅祚家配置圖		
5	149	士大夫家韓屋平面圖	68.7×66.7 (+41.3×39)	○
6	150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103×71.4	×
7	151	士大夫家韓屋構造圖	41.4×65.9	○
8	153	上護軍尹滋承家	52.1×58	○
9		進士尹相協家平面圖		
10	154	里門內具允鉦家圖形	82.6×78.6	×
11	155	李參判起鎬家配置圖	76.3×36	○
12	157	李臨陂瓦家平面圖	48.6×80.4	○
13	160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	117×62.9	×
14	161	淸平尉宮平面圖	57.8×60.1	○
15	162	六十六間半韓屋圖	72.5×42.5	○
16	165	김안태집平面圖	74.5×127.4	×
17		김안태집 옆집		

3) ① 윤영수(1995), 19세기 한양도시주택에 관한 연구-경기감영도의 주택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② 윤진아(2007),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한옥의 평면구성적 특성, 서울대 석사논문, ③ 이규철(2005), 대한제국기 한성부 세실유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등이 있다.

4) 도면번호는 『近代建築圖面集』의 도면 번호를 따랐으며, 17번 가옥은 ‘김안태집평면도’에 같이 작도된 주택으로 편의상 김안태집 옆집으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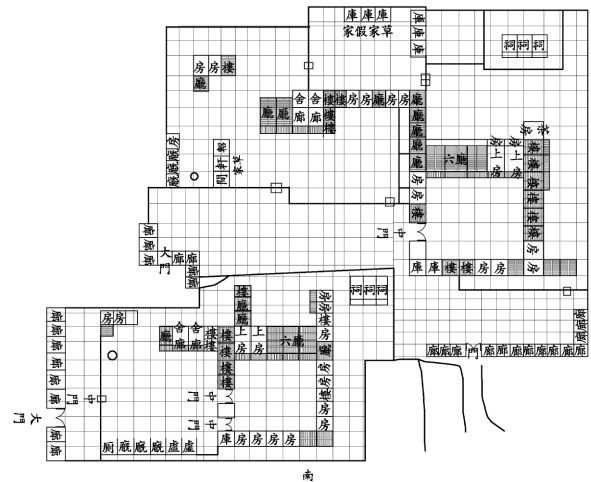


그림 1. 도면 예시(卞世義家 韓宅祚家配置圖-필자 작도)

II. 가대(家垈)와 가옥의 규모

조선시대는 신분에 따라 가대와 집의 규모, 장식 등을 제한하였다. 그 중 집터의 크기에 대한 제한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태조 3년(1394) 10월 한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터를 나누어 줘야 했기 때문이다. 태조 4년에 결정된 기준을 보면 정1품은 35부(負)⁵⁾, 정2품은 30부, 정3품 25부와 같이 한 품에 5부씩 차등을 두어 6품이 10부이고, 7품 이하의 한 품에 2부씩 내려 서민은 2부씩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⁶⁾ 그러나 『經國大典』(1469)

5) 給造家地의 단위는 3等田尺을 쓰는데 3等田尺은 周尺으로 5척7촌3리를 1尺으로 하였다. 여기서 周尺 1척=20cm로 할 때 1負는 약 40평에 해당한다.

6)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1월 乙酉

에는 給造家地의 면적이 대군·공주 30부, 왕자·군·옹주 25부, 1·2품 15부, 3·4품 10부, 5·6품 8부, 7품 이하·유음자손 4부, 서인 2부로 축소된다.

조선 후기에 가옥의 매매 등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보면 가옥의 규모를 瓦家, 空堡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⁷⁾ 따라서 가대의 크기는 집과 공대의 칸수를 합한 것이다.⁸⁾

대상 가옥의 가대와 가옥의 규모는 <표 2>와 같다. 규모의 산정은 도면 바탕에 그려진 방안 또는 주칸을 기준하고 1칸의 크기를 8척⁹⁾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하였다.

표 2. 가대와 가옥의 규모(1尺=30.3 cm)

가옥 번호	家堡	가옥 칸수	空堡	가대 면적(負)	건폐율(%)
1	1141.5칸	172칸	969.5칸	51負	15
2	762칸	124칸	638칸	34負	16
3	565.5칸	105칸	460.5칸	25負	19
4	232.5칸	68.5칸	164칸	10負	29
5	521칸	147칸	374칸	23負	28
6	437칸	77칸	360칸	20負	18
7	697.5칸	87칸	610.5칸	31負	12
8	468칸	76.5칸	391.5칸	21負	16
9	120칸	38.5칸	81.5칸	5負	32
10	988.5칸	133칸	855.5칸	44負	13
11	543.5칸	104.5칸	439칸	24負	19
12	280.5칸	63.5칸	217칸	13負	23
13	468.5칸	160칸	308.5칸	21負	34
14	1,168칸	165.5칸	1002.5칸	52負	14
15	565칸	66.5칸	498.5칸	25負	12
16	438.5칸	100칸	338.5칸	20負	23
17	246.5칸	64칸	182.5칸	11負	26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대가 50부를 넘는 집이 2집(1, 14), 40부대가 1집(10), 30부대가 2집(2, 7)으로 『經國大典』의 대군과 공주의 가대 한계인 30부를 넘는 집이 모두 5집이다. 그 중 면적이 가장 큰 규모인 청평위궁(14)과 소공동홍고양가(1)는 각각 52부와 51부로서 평(坪)수로 환산하면 약 2,000평이 넘는 매우 큰 집터를 차지하고 있다.

가대 면적이 왕자·군·옹주의 가대에 해당하는 15부~25부의 가옥은 총 8집(3, 5, 6, 8, 11, 13, 15, 16)이며, 모두 20부 이상이다. 또한 1·2품에 해당하는 10부~15부의 가옥은 3집(4, 12, 17)이며, 가대가 가장 작은 집(9)은 5부로서 5·6품의 가대 크기에 해당한다.

7) 양진석(2008). 조선 후기 한성부 중부 장통방 정만석계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규장각 32, pp. 33-58.

8) 이와 같이 집과 공대를 합해서 家堡의 규모를 기록하는 것은 洪敬讓(1774-1851)가 지은 『四宜堂志』 堂宇第二의 ‘家舍空堡爲五百三十間’에서도 볼 수 있다.

9) 가사규제에 따르면 주칸의 길이(間長)를 신분에 따라 8尺~11尺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연경당, 운현궁, 낙선재 등의 주칸 크기를 참고하여 한 칸을 8尺으로 계산하였다.

조선시대는 가옥의 규모에 대해서도 1431년(세종 13), 1440년(세종 22), 1449년(세종 31), 1469년(예종 9), 1478년(성종 9), 1865년(고종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분에 따라 칸수의 기준을 정한 바 있었다. 세종 12년 12월에 논의케 하여 다음 해 정월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가사규제를 보면 대군은 60칸, 군·공주 50칸, 옹주·종친·2품 이상 40칸, 3품 이하 30칸, 서인 10칸으로 집의 전체 칸수만을 제한하였다. 그 후 칸수와 함께 복장(棟長), 행장(行長), 주고(柱高) 등 주요 부재의 길이와 높이 등을 규정하였으나¹⁰⁾ 고종 2년(1865)의 『大典會通』에는 다시 칸수만 규정하고 계층별 칸수 또한 『經國大典』과 같게 하였다. 따라서 신분별 가옥의 칸수 규제는 조선 초부터 고종연간까지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대상가옥의 규모를 살펴보면 17개 가옥 중 가옥의 칸수가 100칸이 넘는 집이 총 9집이다(1, 2, 3, 5, 10, 11, 13, 14, 16).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소공동홍고양가(1)로 집의 칸수가 172칸에 이르며, 주동이유명참판가(13)와 청평위궁(14)도 150칸이 넘는다.

그 외 가옥의 칸수 분포를 보면 80칸대가 1집(7), 70칸대가 2집(6, 8), 60칸대가 4집(4, 12, 15, 17)으로 대상 가옥 중 한 집을 제외하고 모든 가옥이 대군의 규제 칸수인 60칸을 넘고 있다. 규모가 가장 작은 진사윤상업가(9)는 38.5칸으로 다른 주택과 큰 편차를 보여주는데, 이 집 바로 옆에 부친인 윤자승가옥(8)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가 옆에 작은 집을 지어 아들을 분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집의 칸수 또한 옹주·종친·2품 이상의 가옥 칸수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성부의 상류가옥들은 가사규제를 거의 지키지 않았으며,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왔던 민간 주택의 상한 칸수인 99칸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대에서 가옥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면적(건폐율)은 12~34% 정도이다. 17개의 가옥 중 건폐율 10%대의 가옥이 10집(1, 2, 3, 6, 7, 8, 10, 11, 14, 15)이며, 20%대가 5집(4, 5, 12, 16, 17), 30%대가 2집(9, 13)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10~20%의 건폐율을 보여준다. 전체 가대에서 空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와 같은 현상은 그만큼 마당의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III. 영역별 실구성과 건축특성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은 규모가 큰 만큼 집의 공간구성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각 집은 가대의 형세와 주변 상황에 맞추어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규모가 클수록 채가 늘어나고 그와 함께 마당도 여러 개로 나뉜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보면 안채, 사랑채, 사당, 대문과 행랑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일부 가옥

10) 세종 22년(1440) 7월 『세종실록』 권 90, 세종 31년(1449) 정월 『세종실록』 권 123, 성종 9년(1478) 8월 『성종실록』 권 95.

표 3. 가옥의 영역별 점유면적과 건물 칸수

가옥 번호	가대 (칸수)	가옥 (칸수)	영역별 대지 및 건물 규모(칸수)											
			행랑영역		안채영역		사랑영역		사당영역		후원영역		기타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건물
1	1141.5	172	255	65.5	225	45	386	46	46	15.5	229.5	-		
2	762	124	204	36	195	39	252.5	40	39.5	9	71	-		
3	565.5	105	187	23	177	42.5	183.5	35	18	4.5	-	-		
4	232.5	68.5	27	9	107.5	37.5	80	16	18	6	-	-		
5	521	147	128	41	107.5	53	228	32	12	5	-	-	동별택영역 45.5 16	
6	437	77	58.5	17	108.5	37.5	211.5	22.5	-	-	58.5	-		
7	697.5	87	236	9	175	44	286.5	34	-	-	-	-		
8	468	76.5	171	16	137	36.5	160	24	-	-	-	-		
9	120	38.5	18	7.5	71	20	31	11	-	-	-	-		
10	988.5	133	136	18	332.5	69.5	130	18.5	64	12	326	15		
11	543.5	104.5	114	28	156.5	32	245.5	40	27.5	4.5	-	-		
12	280.5	63.5	33	13	110	27.5	88	18.5	49.5	4.5	-	-		
13	468.5	160	192.5	58.5	199.5	84.5	31	11	45.5	6	-	-		
14	1,168	165.5	246	52	497	86.5	221	27	24	-	180	-		
15	565	66.5	50	12	96	26	419	28.5	-	-	-	-		
16	438.5	100	86	32	192	33.5	125	28.5	10.5	6	25	-		
17	246.5	64	69	13	86	36.5	46	10	45.5	4.5	-	-		

은 별채와 후원을 따로 구성하였다.

도면만으로는 모든 건물의 성격과 각 실의 귀속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도면에서 실명의 표기 방향¹¹⁾과 퇴의 설치 방향, 실의 기능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나눌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상 가옥의 영역별 점유면적과 가옥의 칸수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영역별 건물의 칸수는 대부분의 주택에서 안채영역이 가장 크다. 안채는 조선시대 가정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으로 안주인의 주생활공간인 몸채뿐 아니라 대규모의 가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속공간이 몸채와 결합되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17개 가옥 중 7집(4, 7, 9, 10, 13, 14, 17)은 가옥의 전체 칸 수 중 50% 이상이 안채영역이다.

사랑채영역은 사랑과 중문채가 주공간이다. 안채에 비해 건물의 칸수는 작지만 사랑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가대면적이 안채영역보다 큰 주택이 9집(1, 2, 3, 5, 6, 7, 8, 11, 15)이나 되어 넓고 개방적인 사랑채의 공간적 성격을 볼 수 있다.

한성부 상류주택은 집집마다 가대의 형세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인 공간의 구성을 보면 대문-중문-사랑채-안채-사당 순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뒤로 갈수록 공간의 깊이와 폐쇄성이 더해지는데 각 영역은 행랑,

창고, 담장 등으로 마당을 둘러 싸 독립된 영역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영역별 실구성과 건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문과 행랑채 영역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들은 향촌의 상류주택과는 달리 도로에 면하여 줄행랑을 구성하거나 대지 주위에 행랑을 건립하여 담장을 대신하였다. 행랑은 보통 단랑으로 구성하는데 필요에 따라 전퇴를 두거나 복랑으로 계획(2, 11, 14, 15)하여 높은 행랑과 담장으로 집안의 권위를 과시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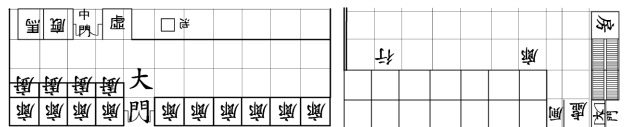


그림 2. 행랑의 예(좌: 단랑, 우: 복랑)

대상 가옥 중 일부는 대문과 주요 실만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行廊 또는 廊으로 기록하여 각 실의 세부적인 기능을 알 수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옥은 실명을 표기하여 행랑채의 실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행랑채는 위치에 따라 바깥행랑채와 안행랑채로 나뉘어진다. 바깥행랑채는 실마다 大門(門), 行廊(廊), 房, 廚, 廳, 庫, 虛(虛間), 厠, 歇所(歇所廳), 下人廳, 馬廐(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대문은 바깥행랑채 중앙부에 있거나 또는 한쪽에 치우

11) 간가도에서는 각 실을 명기할 때 주로 그 실이 소속된 마당과 건물의 좌향에 따라 글씨를 쓰는 경향이 있다.

쳐 있다. 집에 따라 대문 옆에는 방문객들이 잠시 동안 주인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월소청을 마련하였다(1, 6, 10). 바깥행랑은 하인과 지체 낮은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과 마루, 부엌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헛간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구는 대부분 중문채에 두었는데 중문채가 없는 가옥은 바깥행랑채에 마구를 만들었으며(6, 10), 행랑 끝에는 측간을 두었다(6, 11, 16, 17). 이 측간은 外厠(바깥변소)으로 남자들이 사용하고, 여자들이 사용하는 內厠(내변소)는 안채 영역에 별도로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다. 이 마당을 통하여 한 쪽으로는 사랑마당으로 다른 쪽으로는 안마당에 드나들 수 있다. 행랑마당은 사랑으로 통하는 중문채가 전면 또는 직각으로 배치되며, 마당 주위에는 행랑과 방앗간(杵間, 舂間)을 별도로 건립하기도 하였다(14, 1)¹²⁾. 행랑마당은 보통 좌우가 긴 장방형인데 이 마당을 다시 좌우로 나누어 별도의 대문마당을 구성하기도 한다(2).

2. 안채영역

조선시대 상류주택은 남녀유별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내외법에 따라 여성의 공간인 안채와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건립하였다. 가옥도면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內舍/舍廊, 內室/舍廊으로 표기하거나 단순히 內/外로 표기하였다.

안채는 그 영역을 사용자와 공간의 기능에 따라 세분해 보면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본채영역과 반딧아치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들을 하는 부속영역 그리고 장고(醬庫)와 김치고(沈菜庫) 등이 있는 뒷마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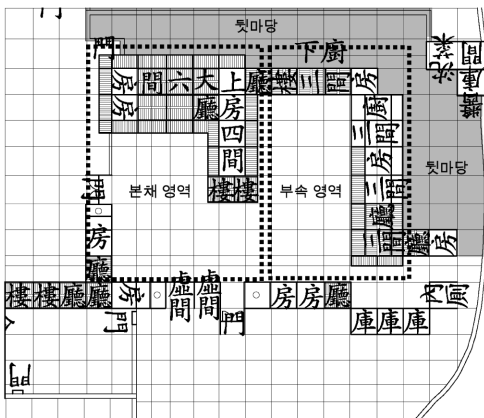


그림 3. 안채의 영역구분(1번 가옥)

안채는 각 실들이 廳, 房, 廚, 樓, 庫 등으로 구성되는데 마루가 깔린 실은 일반적으로 ‘廳’으로 표기하였으며¹³⁾ 大廳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방과 관련된 실의 명칭을 보면 房, 越房, 上房, 下房, 茶房, 寢房, 大房, 洞房 등이 있

12) 1번가옥의 경우 ‘소공동홍교양가도형’에는 없지만 동일가옥을 그린 ‘사대부가배치도형’에는 곳간 옆에 초가 3칸의 舂間이 그려져 있다.

다. 越房은 건넌방, 上房은 옷방 또는 큰방,¹⁴⁾ 下房은 아랫방, 大房은 큰방을 지칭하고 있다. 茶房¹⁵⁾은 실의 위치로 볼 때 차와 다과 등을 준비하는 방으로 추정된다(3, 10). 寢房은 침실로서 청평위궁 안채에서만 보인다. 사랑채에도 부부 별침에 따라 별도로 침방을 두기도 했으며, 또한 방 뒤쪽에 깊숙이 침방을 만들었는데 이를 洞房(5)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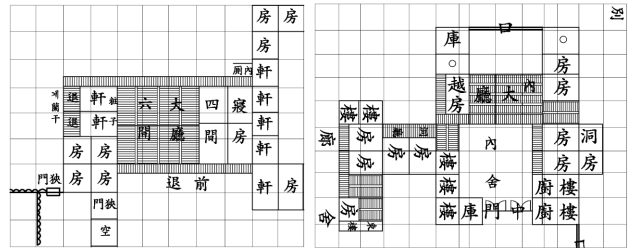


그림 4. 14번 가옥 침방과 5번 가옥 통방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은 사랑으로 통하는 중문과 구분하여 內中門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중문 좌우로는 헛간, 창고, 방, 부엌, 마루 등으로 실이 구성되며 행랑 끝에 측간을 두기도 했다(1, 16).

안채는 평면이 ㄱ자형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 ㄷ자형 또는 ㄷ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가옥에서는 몸채 옆 또는 뒤쪽에 반딧간이라는 별도의 취사공간 및 부속공간을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ㄷ자 또는 日자와 같이 두 개의 마당을 구성하기도 한다.

ㄱ자형 안채는 평면이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 앞에는 부엌이나 누마루가 있는 형태로서 소위 서울지방형(경기형)¹⁶⁾ 민가형태를 따르고 있다. 안방 앞에 부엌대신 누마루를 둘 때는 상방 옆에 부엌을 배치하여 별도의 독립된 영역을 구성했다.

ㄷ자형 안채의 평면은 다양한 실 구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ㄷ자형 상류주택의 평면유형을 몸체의 실구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소위 6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상방과 건넌방이 있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남부지방의 민가와 같이 부엌, 안방(상방), 대청, 방(또는 廳)이 일자형으로 배치된 형태이다.¹⁷⁾

13) ‘청평위궁평면도’에서는 廳 대신 軒을 사용하였는데 마루가 깔린 창고도 모두 軒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礪洞宅淸風舍廊’(도면번호 158)에서는 대청을 抹樓로 명기하였다.
14) 주남철(한국건축사, 고려대출판부)은 경상도지방에서 건넌방을 상방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으나 ‘里門內具允鉦家屋圖形’(10번 가옥)에는 상방과 월방을 따로 명기하고 있어 상방을 옷방 또는 큰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5) 궁중에서 茶房은 임금의 술시중 또는 酒禮進爵을 담당하는 곳이였다(경국대전 주석편).

16) 이와 같이 평면의 중심에 대청이 있는 대청중심형 ㄱ자집을 주남철은 서울지방형이라 하였고, 정인국은 경기형으로 분류하였다.
17) 기존의 연구에서 두 유형의 명칭을 경기형/민가형(정인국, 1985), 일렬형/꺾임형(최일, 1989), 대청형/시대청형(김기주, 1994)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홍승재(1992)는 禮制의 관점에서 常體型/變體型으로 분류한바 있다.

그러나 한성부 상류주택은 이 두 유형 외에도 다양한 실 구성을 하고 있다. 향촌(鄉村)의 상류주택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엌이 본채와 평면은 이어져 있지만 가사를 보조하는 실들과 함께 안마당과 구분되는 별도의 마당을 형성하는 주택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1, 5, 6, 7, 10, 13, 14).

이 공간을 반빗간(飯備間)이라 한다. 반빗간은 부엌(廚), 창고(庫, 廚庫, 樓庫), 방(房), 마루(廳, 軒) 등으로 실이 구성된다. 반빗간은 부엌이 공간의 중심이다. 부엌은 上樓下廚의 구조로서 부엌 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여 물품을 수장하였다. 반빗간은 곡식과 식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들이 많은 실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과 마루로 실을 구성하였다. 이곳에서 반빗아치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빨래와 침선 등 집안일을 하였다. 반빗간 가까이 뒷마당에는 장류와 김치를 보관하는 장고(醬庫)와 침채간(沈菜間)이 있다(1, 10, 13, 14).

이와 같이 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반빗간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한성부 상류주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사랑채영역

사랑은 남자주인의 일상 거처이자 교육과 접객 등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적공간이다. 행랑마당을 통해 중문을 들어서면 사랑영역이다. 중문 없이 대문 안이 바로 사랑마당인 구운옥가옥(10)은 대문 안쪽에 취병(翠屏)을 세워 사랑채가 바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였다. 중문은 단순히 담장에 문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실과 함께 중문채를 이루고 있다.

중문채는 門, 馬廐, 虛, 庫, 房, 廳, 廚, 厠 등으로 실이 구성된다. 중문채는 4칸에서 14.5칸까지 규모가 다양하다. 4칸의 중문채는 문, 마구(2칸), 헛간으로 실을 구성하였으며(12), 필요에 따라 방, 부엌, 마루, 창고, 측간 등 실을 덧붙여 중문채를 구성한다.

마구는 대부분 중문채에 설치하는데(1, 2, 5, 8, 11, 12, 15) 중문만 있는 경우에는 문 옆 또는 사랑 마당 한쪽에 마구간을 별동으로 건립하였다(4, 17). 마구는 손님이 타고 오는 말까지 고려하여 3칸이 보통이며, 작으면 2칸으로 만들었다.¹⁸⁾ 한편 종2품 이상은 초헌(軺軒)을 탔는데 이범진가(5)는 중문채에 초헌을 보관하는 軺軒間을 마련하였으며, 변세의가(3)는 사랑마당에 추가로 별동의 초헌간을 세웠다<그림 5>.

사랑채는 안채와의 관계에 따라 별동형과 접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⁹⁾ 한성부 상류주택은 안채와 독립하여 별동으로 사랑채를 건립한 주택이 대부분이며, 평면적으로 안채와 연결되어 있는 주택도 공간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사랑채는 房, 大廳, 樓, 廚로 실이 구성된다. 사랑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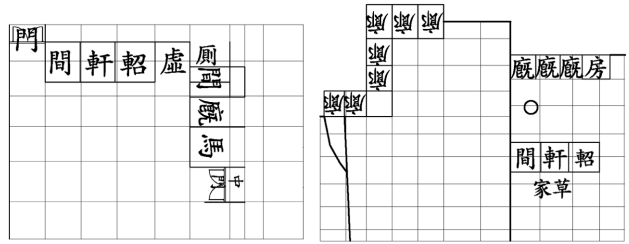


그림 5. 변세의가(左)와 이범진가(右)의 마구와 초헌간

사랑방과 대청이 기본이며 주택에 따라 누마루를 부설한다. 누마루는 평면 끝에 일자로 연결되는 것이 다수이며(3, 4, 5, 15), 전면으로 돌출시켜 ㄱ자형 평면을 구성하기도 한다(6). 부엌은 안채 부엌과 달리 식생활과는 무관하며 방에 난방을 위한 아궁이 또는 간이부엌이다. 방은 대부분 기능의 구분 없이 房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舍廊, 上房, 茶房 등이 명기되어 있다. 舍廊은 사랑방이고 上房은 큰방이다. 청평위궁(14)은 사랑채 부엌 앞에 있는 방을 茶房이라고 하였다. 변세의가(3), 구운옥가(10)의 안채에도 사랑방과 부엌 옆에 茶房이 자리하고 있어 그 위치로 볼 때 다방은 술, 차, 다과 등을 준비하는 방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사랑채는 몸체가 정면 4칸 또는 5칸의 일자형 전퇴집 또는 겹집이 보통이다. 여기에 실이 부가될 때는 누마루가 전면으로 돌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면성을 고려하여 몸체 뒤쪽으로 실들을 연결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구운옥가옥은 사랑 뒤에 폐쇄적인 사랑마당을 구성하고 주위에 방과 마루 등을 배치하였다.

사랑채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랑방과 사랑마루가 확대되고 방들이 분화된다. 그 중 가장 먼저 분화되는 방이 자손이 쓰는 작은사랑방이다.²⁰⁾ 규모가 큰 집에서는 작은사랑방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별동으로 분리하여 작은사랑 또는 아랫사랑이라 하였다. 이 때 큰사랑(윗사랑)은 주인의 사랑이고, 작은사랑은 장성한 아들의 사랑이 된다<그림 6>.²¹⁾

또한 사랑채에는 사랑방에 근접하여 침방을 별도로 두기도 하였으며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도 마련하였다. 조선시대는 奉祭祀와 함께 接賓客이 큰일이었다. 접객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신분과 관계에 따라 격식에 차이가 있는데 사랑영역에는 귀한 손님들이 유숙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채는 안채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 대신 실이 필요하면 小舍廊, 別堂, 書室, 別宅 등으로 당호가 명기된 별채를 두고 있다. 사랑마당은 안마당에 비해 넓고 개방적이다. 이곳에 연지를 파고 蓮亭과 草堂을 세웠으며, 동산을 조성하고 山亭을 짓기도 했다(1, 2, 10, 15, 16).

18) 구운옥가옥은 대문채에 6칸의 마구와 1칸의 마방을 두었다.
19) 기존의 연구에서 사랑채의 유형을 안채와의 관계에 따라 별동형과 접속형(최일)·독립형과 일체형(정인국)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20) 윤일이(1999).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p. 60
21) 청평위궁은 연지 옆 사랑채로 출입하는 중문을 上舍廊中門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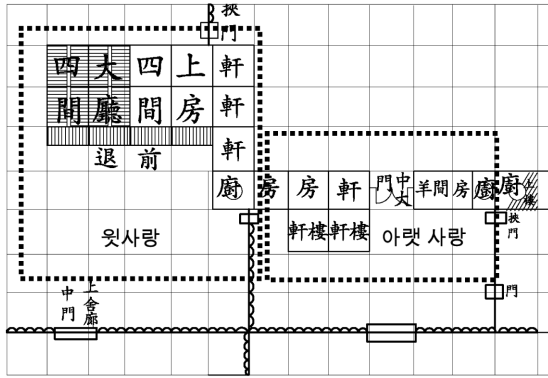


그림 6. 청평위궁(14) 사랑채

그 중에서도 구윤옥가옥은 사랑채 앞뒤로 넓게 마당을 두고 주위에는 花階를 조성하였으며, 사랑 우측 높은 곳에는 太華亭, 蓮池, 竹亭, 雲臺 등이 있는 별도의 정원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들은 사랑에 정원을 꾸미고 이곳에서 시회와 풍류 등을 통하여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여가를 향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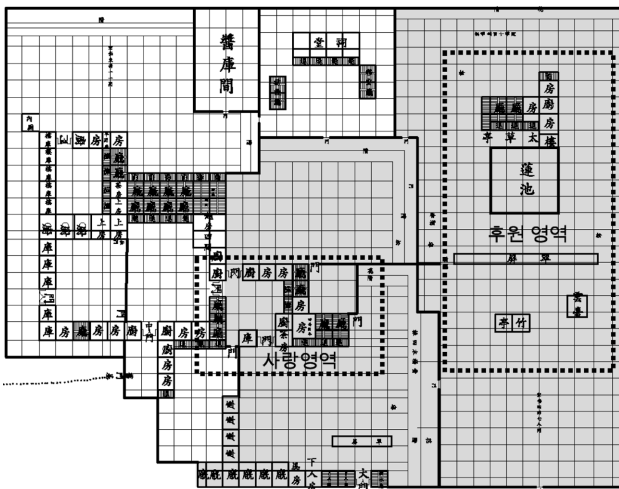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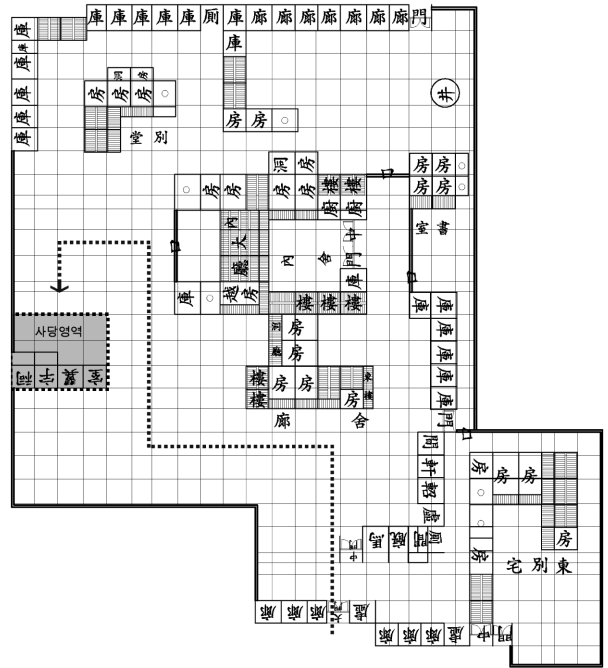
그림 7. 구윤옥가옥(10) 사랑과 후원 영역

4. 사당영역

사당은 대상 가옥 중 11곳(1, 2, 3, 4, 5, 10, 11, 12, 13, 16, 17)에 있는데 도면에서 祠宇, 祀宇, 祠堂 등으로 채의 명칭을 표기하고 있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사당은 정침의 동쪽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향촌의 상류주택은 정침의 동쪽 및 동북쪽에 사당이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대상가옥 중 사당이 정침의 동쪽에 위치한 가옥은 5곳이며(2, 4, 10, 13, 16), 나머지 가옥은 서쪽 또는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향촌의 상류주거에 비해 도시의 주거들은 한정된 가대와 가대가 접한 도로 및 주변 여건 등이 보다 제한적 조건으로 건축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사당은 예제(禮制)보다도 대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가 정해졌다. 한편 대지의 전면과 후면이 도로



南

그림 8. 사당의 배치(5번 가옥)

에 접하여 대문과 후문이 있는 ‘사대부가한옥평면도’(5)의 가옥²²⁾을 보면 사당이 대지 중간쯤에 배치되고, 사당의 좌향을 사랑채와 반대로 하여 대문에서 진입 시 깊이감을 확보하며 폐쇄적인 공간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8>.

사당은 정면 3칸이 대부분이며 측면은 1.5칸, 2칸, 2.5칸에 모두 전퇴를 두었다. 구윤옥가옥의 사당은 특이하게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이범진가옥은 사당 2칸에 익실 2칸이 연이어 있으나 대부분 사당의 칸수는 예제를 따르고 있다.

사당은 주위에 담을 둘러 독립된 영역을 이룬다. 그 안에 별도로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2, 13)를 두기도 하고, 유사시 위패를 옮겨 보관할 수 있는 이안청(10) 및 배설청(1, 10)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옥도면 중 실명이 명기된 도면의 17개 가옥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규모와 영역별 실구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가옥 대부분이 신분에 따른 가대의 크기와 건물 칸수의 규제 한계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였음을 규

22) ‘士大夫家韓屋平面圖’(도면번호 149)의 가옥은 ‘李參判範晉家等配置圖’(도면번호 156)의 이참판범진가와 동일한 가옥이다. 따라서 이 도면을 참고해 볼 때 북쪽에 후문은 磚洞으로 이어지며 사당 우측에 담장이 있어 별도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명하였다. 家塿는 대상가옥 2/3 이상이 왕자·군·옹주의 가대 크기인 15~25부 이상이며, 일부 가옥은 50부(약 2000평)이상의 큰 집터를 갖고 있었다.

가옥의 칸수 또한 한 집을 제외하고 모든 가옥이 대군의 규제 칸수인 60칸을 넘으며 100칸이 넘는 집이 대상가옥의 50% 이상이다. 이처럼 한성부 상류주택은 가사규제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민간주택의 상한 칸수인 99칸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집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상 가옥은 가대의 형세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공간의 구성을 보면 대문-중문-사랑채-안채-사당 순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영역을 구분해 보면 대문과 행랑, 사랑채, 안채, 사당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점유 면적과 건물 칸수를 비교하였다. 영역별 건물의 칸수는 안채영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안채영역은 본채와 반빗아치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는 부속영역, 장고와 김치고 등이 있는 뒷마당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안채영역이 전체 건물 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옥이 대상가옥의 41%(7/17)이다. 사랑채는 안채에 비해 건물의 칸수는 작지만 사랑영역이 점유하고 있는 가대의 면적이 안채영역보다 큰 주택이 대상가옥의 50% 이상이 되어, 넓고 개방적인 사랑영역의 공간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도면에 표기된 실명을 바탕으로 영역별 공간과 실 구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대상가옥의 다양한 계획 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타 지역 상류주택과 비교해 볼 때 안채영역에 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반빗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일부 가옥은 집주인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유식(遊息) 등을 위하여 사랑채영역에 넓은 정원을 조성하고 정자, 별당, 서실을 건립하는 등 한성부 상류주택의 지역적 특성을 일부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성과 중에 하나는 행랑, 중문채, 반빗간 등 부속영역의 실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은 주거건축 연구가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속채의 정확한 기능과 실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영역별 가옥칸수에서 볼 수 있듯이 부속채는 가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반빗간의 다양한 실

구성과 문, 마구, 헛간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방, 부엌, 마루, 창고, 측간, 초헌간까지 구비한 중문채, 그리고 바깥행랑채의 각 실(大門, 行廊, 房, 廚, 廳, 庫, 虛, 廁, 歇所, 下人廳, 馬廐)의 기능과 구성을 확인함으로써 한성부 상류주택의 전체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은 조선 후기 한성부 가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개개 가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향촌의 상류주택 및 19세기 중후반에 궁궐 내에 지어진 사대부풍의 주거건축과 비교를 통해서 한성부 상류주택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성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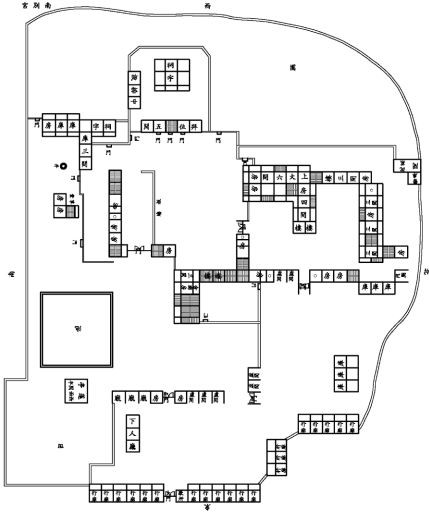
1. 김기주 (1994).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 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2. 대한건축사협회 (1994). 한국전통건축 제2집 昌德宮.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3. 박선희 (1991).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 사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4. 서울특별시 역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건축사 (서울역사총서 2). 서울: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1993). 雲峴宮 실측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6. 유홍준·김영철 (2007).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지역. 서울: 놀와.
7. 윤일이 (1999).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8. 윤성숙 외 (2007). 한국 주거와 삶. 경기: 교문사.
9. 정정남 (2003).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울.
10. 정정남 (2009). 임진왜란 이후 남별궁의 공해적 역할과 그 공간 활용. 건축역사연구, 18(4), 43-62.
11. 주남철 (2010). 한국건축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2.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09). 近代建築圖面集-도면편.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3. 홍경모 저 이종묵 역 (2009).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14. 홍승재 (1992).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제적 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15. 홍승재 (2009). 장서각소장 가옥도형. 近代建築圖面集-해설편. 23-39.

접수일(2010. 11. 26)
수정일(1차: 2010. 12. 29)
게재확정일(2011.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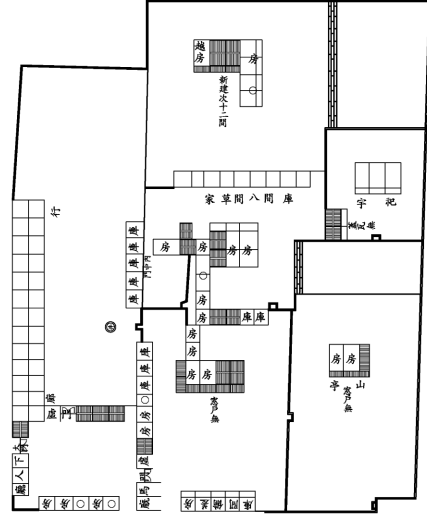
부 록

연구대상 기옥도면(필자작도-도면의 명확도를 고려하여 방안 생략, 廳과 退는 마루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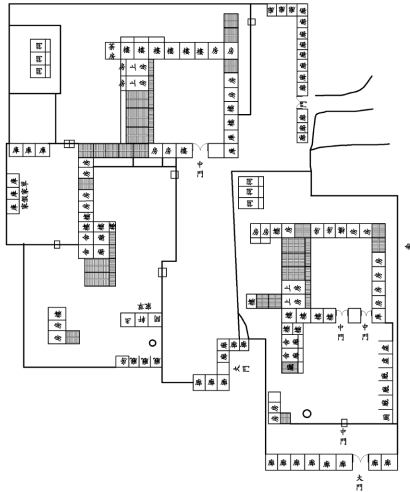
1. 小公洞洪高陽家圖形



2. 士大夫家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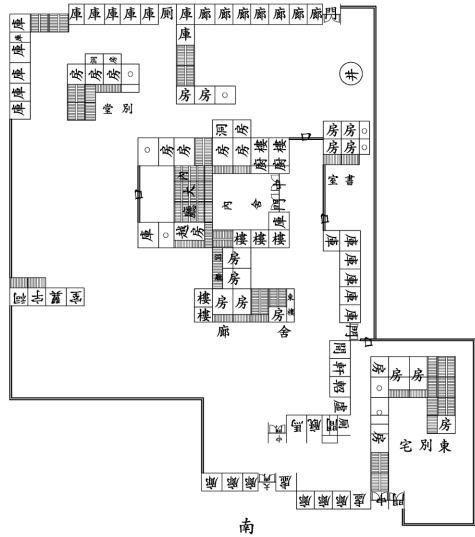


3.4. 下世義家/韓宅祚家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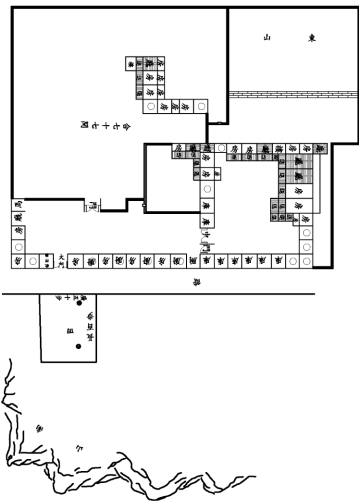


변세의가(좌), 한택조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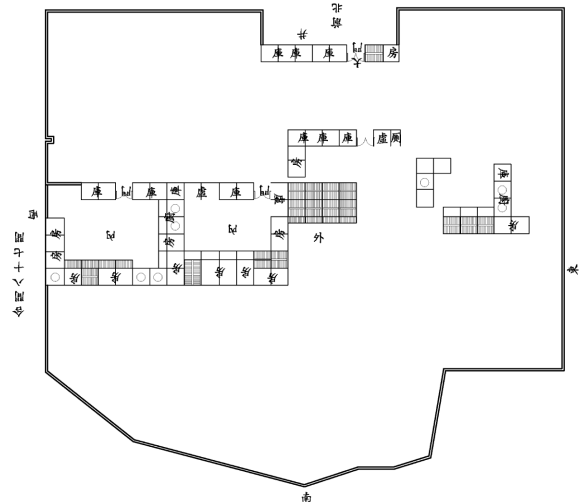
5. 士大夫家韓屋平面圖



6.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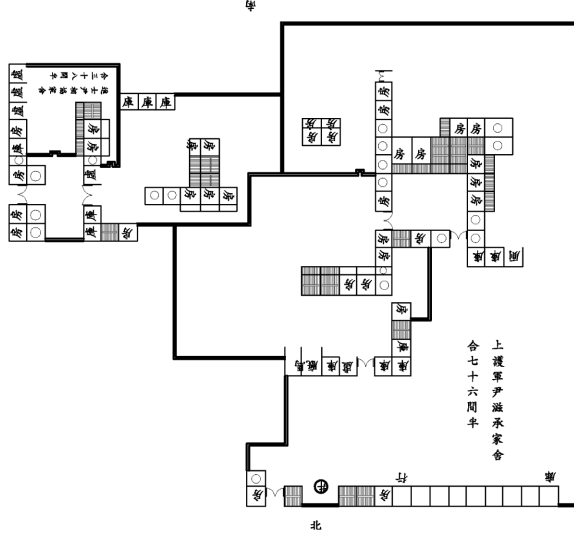


7. 士大夫家韓屋構造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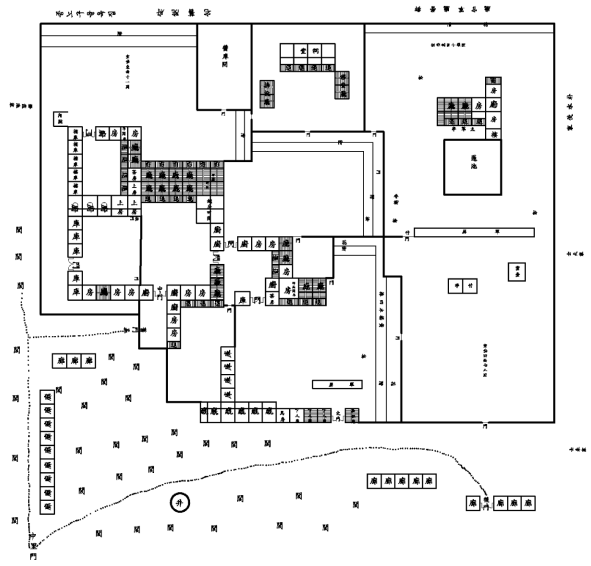
연구대상 가옥도면(필자작도·도면의 명확도를 고려하여 방안 생략, 廳과 退는 마루로 표현) 계속

8.9. 上護軍尹滋承家/進士尹相協家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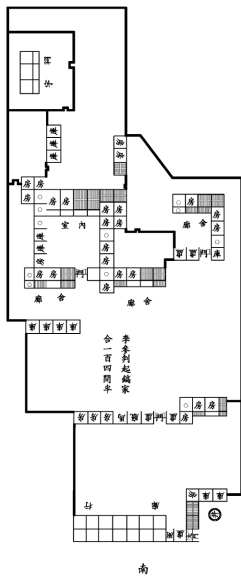


윤상협가(좌), 윤자승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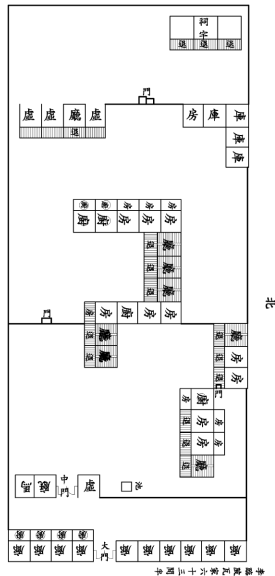
10. 里門內具允鉉家圖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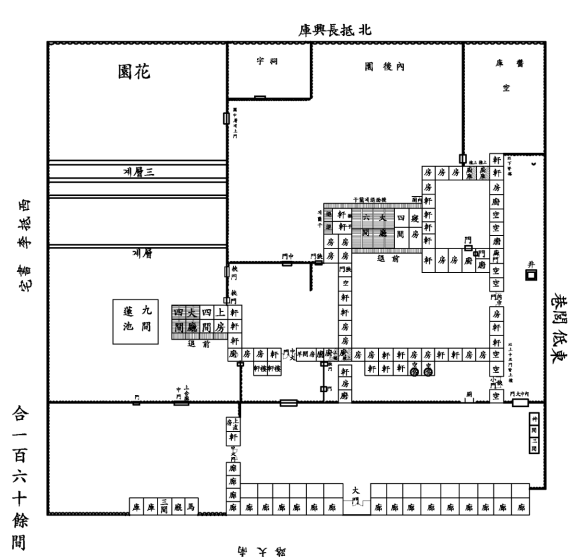
11. 李參判起鎬家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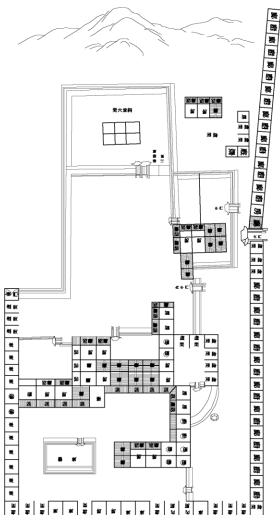
12. 李臨陂瓦家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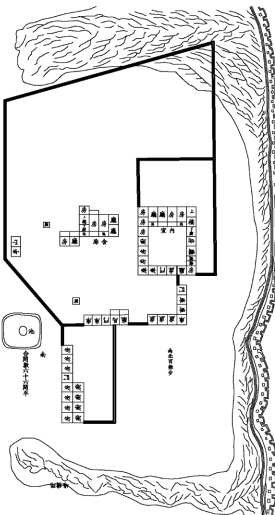
14. 淸平尉宮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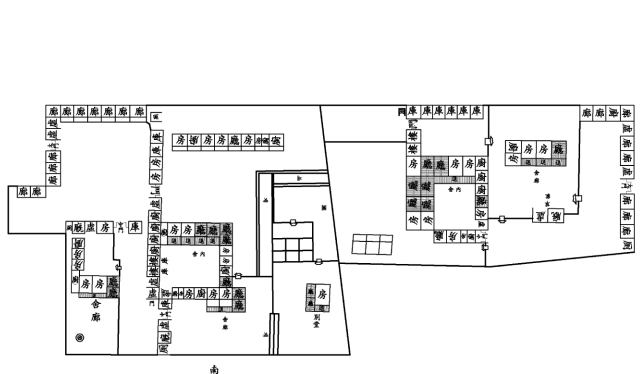
13.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



15. 六十六間半韓屋圖



16,17. 김안태집平面圖



김안태집(좌), 김안태집 옆집(우)